

# 일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차수민  
춘해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 Study on the differences in the stress and the strategies for coping with such stress arising from clinical fieldwork in accordance with the DISC behavioral style of some of the students of occupational therapy department

Su-Min Cha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요약** 본 연구를 통해 일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보고, DISC 행동유형에 따른 대처방식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학생들의 행동유형에 따라 임상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5년 9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위치한 작업치료(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DISC 행동유형검사를 실시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DISC 행동유형에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 세부항목에 차이가 나타났고, DISC 행동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주도형은 임상실습 기관의 물리적 환경, 임상과제의 양, 환자에 대한 수행평가, 다른 실습생과의 비교 항목에서, 사교형은 SOAP 노트와 일지작성 항목에서, 안정형은 자신의 능력수준, 실습지와 집과의 거리, 과제에 의한 수면부족 항목에서, 신중형은 할당받은 환자의 상태, 환자의 성별 항목에서 각각 다른 유형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도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신중형은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시 학생들의 행동유형을 고려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지도 및 상담 매뉴얼 개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DISC 행동유형,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작업치료(학)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stress arising from clinical fieldwork of some of the students of occupational therapy depart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C behavioral style and the differences in the coping strategy. It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presentation of means of coping with stress that can occur at the time of clinical fieldwork in accordance with the behavioral styles of the students. As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tailed items of clinical fieldwork stress in accordance with the DISC behavioral styles and differences in the strategy for copying with stress in accordance with the DISC behavioral styl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manual for fieldwork instructions and consultations in order for the students of occupational therapy department to cope with the clinical fieldwork stress at the time of clinical fieldwork by considering the behavioral styles of the students through additional researches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aforementioned results of the study.

**Key Words** : DISC behavioral style, Clinical Fieldwork, Stress, Coping Strategies,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Received 14 June 2016, Revised 20 July 2016

Accepted 20 August 2016, Published 28 August 2016

Corresponding Author: Su-Min Cha(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mail: csm1206@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가되면서 치료의학, 예방의학에 못지않게 재활의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각 치료사들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1]. 치료사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한 임상실습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임상실습이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직업치료를 적용하는 과정과 방법을 훈련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학생들의 생각과 자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과정이다[2].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 및 실무능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며, 전공과 관련된 기관의 현황 및 전망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진로결정을 도와준다[3].

실습생들은 학생과 치료사라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실습자로서의 자세와 역할, 치료사의 자세와 역할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4].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기반으로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위하여 실습목표를 세우고 실습에 임하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실습은 큰 의미를 지닌다[5]. 그러므로 학생들의 실습목적과 목표에 적합한 실습내용과 그것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실습지도 및 감독의 내용과 질은 학생들의 실습만족도와 성취도를 높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6].

이와 같이 임상실습은 실습생들에게 중요한 교육과정이지만 실습과정을 통해 항상 긍정적인 경험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비 직업치료사인 실습생들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실습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실습지도자와 클라이언트 및 동료 실습생 그리고 실습기관과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실습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실습생들은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자신과의 갈등을 느끼고 있으며, 실습준비에 필요한 자료제공 부족 및 실습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7].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습교육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도나 만족도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이는 이론과 실습과의 차이로 인한 혼돈, 전문지식의 부족 및 자신감 결여, 대인관계에서의 경험 부족, 비교육적인 실습환경 등으로 인해 실습 중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8,9,10]. 남문희와

김혜옥(2016)[11]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후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26점으로 중간이상 수준으로 나타나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상실습교육을 통하여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상실습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12],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13]. 최근 저자는 교육현장에서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부정적인 경험을 한 학생들의 경우 임상실습 기간 중에 직업치료 직무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사결정을 내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을 종종 보았다. 박현정과 오재우[14]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에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은 30%였고, 간호 전문직관에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설명력 53%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직업치료 임상실습은 직업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치료(학)과 학생들의 행동유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임상실습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별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진로의식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DISC 행동유형은 각 유형별로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교수는 학생들의 행동유형이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고 강점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인 진로의식을 갖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유형별로 심도 깊은 상담과 토의를 통해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직업치료 전문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금까지 직업치료 임상실습 현황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이루어진바 있으나, 학생들의 행동유형에 따른 실습 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처방식을 제시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직업치료(학)과 학생들의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보고, DISC 행동유형에 따른 대처방식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학생들의 행동유형에 따라 임상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본인의 강점을 최

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 임상실습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작업치료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작업치료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치료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치료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문헌연구

### 2.1 DISC 행동유형

사회심리학자 Lewin[15]이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고유한 성격적 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함수라고 설명하였다. 즉, 인간의 행동 강도의 세기나 방향은 자극상황인 환경에 개개인의 유인성이라는 힘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오랜 시간동안 학습된 것이므로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행동유형이라고 부른다[16]. Marston[17]은 인간이 환경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힘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4가지 DISC행동유형인 주도형(D), 사교형(I), 안정형(S), 신중형(C)으로 분류하였다. 주도형(D)은 속도가 빠르며, 일 중심적이며 주도적인 행동유형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지시적이고 결단력이 있으며, 자기 주장적이고 통제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떠한 장애물이나 저항을 극복함으로써 동기를 부여 받는다. 사교형(I)은 사람 중심적이며 속도가 빠른 형으로 설득력이 있고, 사교적인 행동유형으로 분류된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원하지만, 주도형(D)보다는 우호적이고 설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편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즐기고 관계 맺기를 좋아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안정형(S)은 사람 중심적이고 속도가 느린 사람으로 인정이 많은 유형이다. 항상 느긋하고 의존적이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좋아한다. 상황을 리드하기보다 주변 환경에 순응하며, 우호적이며 지원적인 상황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한다. 신중형(C)은 일 중심적이고 속도가 느린 사람으로, 모든 일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행해지고, 옳은 것을

좋아한다. 또한 내성적인 편이며 분석적이며 항상 일을 체계적으로 잘 조직하고, 격식을 중요시하는 편이다[16,18,19]. 이러한 서로 다른 개인의 행동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의 행동유형을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 구성원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20].

### 2.2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신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찾게 되는데, 자신이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노력을 대처(coping) 또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이라고 한다. Eysenck[21]은 스트레스 경험 유무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및 해결방식이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정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증상 및 그로 인한 결과의 수준은 각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22]. Lazarus[22]와 그의 동료들은 대처기능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적인 문제를 변화시키거나 다스리는 것(문제 집중적 대처)과 그 문제에 대한 정서 반응을 조절하는 것(정서 집중적 대처)이다.

문제 집중적 대처에는 스트레스 유발 인자를 변경시키므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이며, '정보 수집하기', '계획 세우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기' 등 도구적이며 과제-지향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문제 중심적 대처에는 두 가지 전략이 포함되는데 자신에 대한 것과 환경에 대한 것이다. 자신에 대한 전략은 열망 수준의 변화, 자아수준의 감수, 행동의 새로운 표준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학습 등과 같은 동기적이고 인지적 변화 등이며, 환경에 대한 전략은 환경적 압력, 장애, 자원, 절차들을 변형시키는 전략들을 사용한다.

정서중심의 대처반응은 스트레스 유발인자의 결과로 인해 생기는 정서적 상태를 관리하거나 조절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받아들이기', '소망적 사고', '사회적 지지추구', '자신을 비난하기', '긴장감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자신에게 묻어두기'와 같은 대처 방식들을 사용하며, 회피, 최소화, 거리유지, 선택적 관심, 긍정적 비교, 긍정적 가치부여 등과 같은 전

략들을 포함한다[23]. 요약해 보면, 개인은 같은 스트레스 요인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대처방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24].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DISC 행동유형 진단도구를 적용하여 행동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2015년 9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위치한 직업치료(학)과가 있는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였다. 그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 총 196명을 대상으로 DISC 행동유형 진단도구를 적용한 결과 주도형(D형) 37명(19%), 사교형(I형) 57명(29%), 안정형(S형) 51명(26%), 신중형(C형) 51명(26%)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로 3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총 12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자들에게 임상실습 스트레스 척도와 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해 면대면 설문을 실시하였다.

#### 3.2 연구도구

##### 3.2.1 DISC 행동유형

DISC 행동유형 진단도구로 사용되는 DISC PPS(personal profile system)는 1972년 John Geier 박사가 미국의 칼슨 러닝사(Carlson Learning Co.)와 협력하여 개발하였고, 현재 55개국에 넘는 나라에서 17개 언어로 번역되어 기업 및 교육현장,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한국교육컨설팅연구소(Korea Educational Consulting Institute)가 번역한 국문판 DISC PPSS(Personal Profile System)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행동유형의 특성을 기술한 형용사 중에서 자신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요소인 '최고치' 하나와 가장 부합되지 않은 요소인 '최소치' 하나씩을 선택한 후, 가려져 있는 표기 란을 동전으로 벗겨내어 표기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행동유형이 표시된 부호별 '최고치'에 표기된 개수에서 '최소치'에 표기된 개수를 뺀 숫자를 집계표로 옮겨 그래프로 옮겨 그린 후 그래프 상에서 최고점을 찍은 유형을 조사대상자의 행동으로 진단하였다[14]. 총 28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자가 PPS계산방식(퍼스널 프로파일 그래프)에 따라 주도형(D), 사교형(I), 안정형(S), 신중형(C)으로 분류하였다.

##### 3.2.2 임상실습 스트레스

Cohen[25]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를 이해경[26]이 번역하고 수정한 것 중 임상경험영역 24문항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1점인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에서 4점인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로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2.3 스트레스 대처방식

Cohen[25]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이해경[26]이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실정에 맞게 보완과 수정을 하여 2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제중심대처 11문항, 정서중심대처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1점인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4점인 '많이 사용 한다.'로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 3.3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척도 점수와 DISC 행동유형에 따른 대처방식 척도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비교와 DISC 행동유형에 따른 대처방식 비교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102명(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년은 3학

년이 91명(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3년제가 104명(87%)으로 4년제 16명(13%)보다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N=120)

Characteristics	Division	n(%)
Gender	Woman	102(85%)
	Man	18(15%)
Grade	Second Year	16(13%)
	Third Year	91(76%)
	Fourth Year	13(11%)
College / University	College (three-year course)	104(87%)
	University (four-year course)	16(13%)

#### 4.2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임상실습 스트레스 항목 중에서 SOAP 일지작성, 자신의 능력 수준, 할당받은 환자의 상태, 환자의 성별, 임상실습 기관의 물리적 환경, 실습지와 집과의 거리, 임상과제의 양, 과제에 의한 수면부족, 환자에 의한 수행평가, 다른 실습생과의 비교에 대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DISC 행동유형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Table 2> Differences in the clinical fieldwork stress in accordance with DISC behavioral styles

Item	D type (N=30)	I type (N=30)	S type (N=30)	C type (N=30)	P
	M(SD)	M(SD)	M(SD)	M(SD)	
Evaluation by occupational therapist	2.73 (.944)	2.53 (.776)	2.80 (.887)	2.93 (.828)	.08
Fulfillment of one's own expectations when caring clients	2.57 (.728)	2.77 (1.006)	2.80 (.847)	2.67 (.802)	.10
SOAP note and filling in the practice journal	2.57 (1.223)	3.40 (.675)	3.30 (.837)	2.90 (.845)	.00*
Prolonged period of fieldwork	3.13 (.900)	3.43 (.935)	3.40 (.770)	3.03 (.809)	.11
Level of one's own capabilities	2.83 (1.177)	2.73 (.980)	2.97 (.809)	2.27 (.980)	.04*
Condition of the client assigned to student	2.47 (1.106)	1.87 (1.074)	2.27 (.868)	2.67 (1.184)	.03*

Personality of the client	2.70 (1.119)	2.57 (1.135)	2.53 (.860)	2.47 (1.074)	.12
Gender of the client	1.67 (.844)	1.57 (.971)	1.67 (.802)	3.17 (1.177)	.00*
Communication with the client	2.33 (1.093)	1.93 (1.048)	2.27 (.980)	2.43 (1.040)	.08
Having to come to work at early hour and leave work at late hour	2.90 (.885)	2.90 (1.094)	2.83 (1.020)	3.40 (.855)	.09
Physical environment of the clinical fieldwork institution	2.97 (1.098)	2.83 (1.177)	2.27 (.944)	2.27 (1.202)	.02*
One's ability to fulfill the requirements of the clinical tasks	2.87 (1.106)	2.77 (.774)	2.87 (.973)	2.87 (1.252)	.09
Preliminary education for the execution of the occupational therapy works	2.70 (.750)	2.37 (.809)	2.93 (.740)	2.73 (1.081)	.11
Possibility of making mistakes	2.93 (.944)	3.03 (.928)	2.90 (.845)	2.80 (.847)	.11
Works other than fieldwork	2.70 (1.022)	2.23 (1.104)	2.60 (.932)	2.90 (1.185)	.09
Stress on making presentation	2.83 (.986)	3.00 (.983)	3.07 (1.015)	3.07 (.785)	.07
Distance between the venue of fieldwork and home	2.23 (.898)	2.63 (1.033)	2.93 (1.143)	2.37 (.964)	.04*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linical institution	2.70 (.915)	2.30 (.988)	2.77 (1.006)	2.50 (.938)	.12
Being put under new environment/situation	2.70 (.794)	2.50 (.938)	2.73 (.828)	2.37 (.928)	.09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s by occupational therapist	3.10 (.885)	2.73 (.785)	2.87 (.776)	2.70 (.827)	.08
Clinical fieldwork load	3.27 (.907)	3.00 (.871)	3.10 (.803)	2.63 (.809)	.03*
Lack of sleep due to heavy workload	3.20 (.935)	3.20 (.805)	3.37 (.765)	2.67 (.802)	.00*
Evaluation of performance by the clients	3.03 (.928)	2.63 (.809)	2.90 (.759)	2.37 (.964)	.01*
Comparison with other students	3.17 (.950)	2.40 (1.070)	2.97 (.890)	2.47 (.973)	<.01*

\* $p<.05$

### 4.3 DISC 행동유형에 따른 대처방식 차이

DISC 행동유형에 따른 대처방식 차이는 다음과 같다 <Table 3>. 문제중심 대처방식 중에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다른 활동에 참여, 상황을 다루는 것을 일시적으로 연기, 정상시의 술, 담배, 마약섭취량 변화를 포함한 세 가지 항목에서 DISC 행동유형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정서중심 대처방식 중에서 “하나님, 더 높은 힘에 맡긴다”는 한 가지 항목에서 DISC 행동유형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3> Differences in the strategy for coping with stress in accordance with DISC behavioral styles

Item	D type (N =30)	I type (N =30)	S type (N =30)	C type (N =30)	P	
	M (SD)	M (SD)	M (SD)	M (SD)		
Problem Focused Coping	Tried to deal with the situation personally.	2.50 (.900)	2.40 (.770)	2.37 (.669)	2.53 (.571)	.08
	Tried to change the situation.	2.63 (.809)	2.27 (.785)	2.40 (.855)	2.53 (.819)	.09
	Searched services of the university that can be helpful.	1.87 (.973)	1.47 (.681)	1.73 (.828)	1.97 (.999)	.11
	Considered other methods of dealing with the situation.	2.70 (.837)	2.70 (.915)	2.57 (.817)	2.83 (.747)	.09
	Accepted the alternative plan and executed what is possible.	2.90 (.803)	2.63 (.999)	2.37 (.890)	2.53 (.776)	.10
	Participated in other activities to turn my thoughts on the issue.	3.17 (.874)	2.50 (.974)	2.63 (1.033)	2.37 (1.066)	.01*
	Sleeping habit has been changed.	2.57 (.858)	3.00 (.871)	2.63 (.928)	3.00 (.983)	.09
	Eating habit has been changed.	2.70 (.915)	2.70 (1.088)	2.70 (.915)	2.70 (1.022)	.08

Emotion Focused Coping	Temporarily postponed the dealing of the situation.	2.43 (1.073)	1.87 (.900)	1.67 (.884)	1.67 (.802)	.00*
	The amounts of alcohol, cigarette and narcotics normally used have changed.	2.13 (1.074)	1.67 (.884)	1.33 (.758)	1.90 (1.062)	.01*
	Was able to better understand my concerns by finding relevant information.	2.40 (.770)	2.63 (.669)	2.47 (.776)	2.13 (.819)	.10
	Shared concerns and feelings with friends.	3.23 (.728)	2.97 (.890)	3.07 (.944)	2.97 (.850)	.09
	Executed what is expected of me.	2.73 (.740)	2.67 (.711)	2.57 (.774)	2.63 (.729)	.09
	Accepted the situation.	2.97 (.765)	2.83 (.874)	2.93 (.691)	3.03 (.765)	.10
	I became depressed or concerned.	2.87 (.900)	2.63 (1.066)	2.67 (.994)	2.57 (1.040)	.11
	I prayed or meditated.	1.97 (.999)	1.37 (.809)	1.90 (1.954)	1.80 (.997)	.06
	I relied on God or higher powers.	1.93 (.944)	1.37 (.809)	1.50 (.861)	2.00 (1.017)	.01*
	Released by feelings because I got angry.	2.40 (.932)	2.07 (.907)	1.93 (.868)	2.43 (.898)	.09
Emotion Focused Coping	Shared my concerns and feelings with my family.	2.33 (1.028)	2.03 (1.033)	2.40 (1.003)	2.00 (.983)	.09
	I realized that I am not alone.	2.50 (1.075)	2.67 (.994)	2.50 (.731)	2.30 (1.264)	.08
	Focused on the affirmative aspects of the situation.	2.67 (1.028)	2.77 (.858)	2.60 (.814)	2.47 (.819)	.10
	I talked with someone who can do something for my concerns.	2.57 (1.104)	2.67 (.922)	2.53 (.900)	2.47 (1.279)	.08

\*p<.05

### 5. 논의 및 결론

일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항목 중에서 SOAP 일지작성, 자신의 능력 수준, 할당받은 환자의 상태, 환자의 성별, 임상실습 기관의 물리적 환경, 실습지와 집과의 거리, 임상과제의 양, 과제에 의한 수면부족, 환자에 의한 수행평가, 다른 실습생과의 비교에 대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DISC 행동유형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SC 행동유형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한 결과 주도형(D)의 경우 임상실습기관의 물리적 환경, 임상과제의 양, 환자에 의한 수행평가, 다른 실습생과의 비교 항목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형(I)의 경우 SOAP노트와 일지작성 항목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안정형(S)의 경우 자신의 능력수준, 실습지와 집과의 거리, 과제에 의한 수면부족 항목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중형(C)의 경우 할당받은 환자의 상태, 환자의 성별 항목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DISC 행동유형에 따른 대처방식 차이는 문제중심 대처방식 중에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다른 활동에 참여, 상황을 다루는 것을 일시적으로 연기, 평상시의 술, 담배, 마약섭취량 변화를 포함한 세 가지 항목에서 DISC 행동유형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중심 대처방식 중에서 “하나님, 더 높은 힘에 맡긴다”는 한 가지 항목에서 DISC 행동유형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을 비교분석한 결과, 주도형(D)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신중형(C)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결과는 전무한 실정으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도형(D)은 가장 많은 항목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나타냈으며,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임상실습 시 본인의 행동특성인 주도적인 행동보다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형근과 황인표[27]는 주도형(D)의 경우 신중형(C)과 함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유형이라고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학생과 함께 논의를 통해 음악듣기, 영화감상하기 등과 같은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외부로 표출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교형(I)의 경우 가장 적은 항목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의 DISC 행동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차이에 관한 이용화[28]의 연구를 비롯한 병원종사자의 DISC 유형과 스트레스, 직무만족, 직무몰입 간의 연구[29]에서도 사교형(I)의 스트레스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사교형(I)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환경에서 매력을 느끼므로, 학생 지도 시 학생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환경에서 동기부여가 잘 되는 성향을 강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동기부여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정형(S)은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좋아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유형으로 매번 새롭고 다양한 임상실습지를 접하게 되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실습지와 집과의 거리 항목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습지 배정 시 근거리에 배정해주거나 익숙한 조원을 배정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신중형(C)은 주도형(D)과 함께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도 할당받은 환자의 상태, 환자의 성별과 같은 세부적인 요소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중형(C)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폭력경험, 대처양식, 및 회복탄력성이 정서반응과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0]에서는 정서중심대처가 높을수록 정서반응,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신중형(C)의 학생들의 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상담과 학습방향 제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유형이므로 교수가 적극적인 칭찬

과 격려를 많이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 유형이 모두 다르고, 각 유형마다의 장단점이 있지만 행동유형 뿐만 아니라 성별, 임상실습 경험 년수 등과 같은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에 따라 학생들을 특정화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아야 한다. 치위생(학)과 전공에 대한 실습여건 특성에 따른 실습만족도 연구[31]에서는 임상실습 시 만족도에 유의성을 나타낸 항목은 학제의 종류, 전공 만족도, 실습 병원 선택권, 실습병원의 치과위생사 수이며( $p<.05$ ), 학제의 종류는 4년제 임상실습 시 만족도가 3.35로 나타나 3년제 2.9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습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보건계열 여대생의 긍정정서, 부정정서 및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분석 연구[32]에서도, 우울은 일반적 특성 외에도 긍정정서인 주관적 행복과 자아존중감은 낮을수록, 부정정서인 A형 행동 유형과 절망감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인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취업불안스트레스, 성격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는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행동유형이 각기 다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각 학생의 환경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어 실시되었으며, 대상자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실습지의 특성이나 외부 환경 등의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각 직업치료 학생들이 건강한 전문직 직업치료사가 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수자나 임상의 임상실습 지도자들이 활용가능 하도록 학생들의 행동유형 및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체계적인 실습지도 및 상담 매뉴얼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1] J. A. Kwon, J. H. No, S. J. Jang, J. W. Won, & S.

H. Sim,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5, No. 1, pp. 119-132. 2007.

[2] J. K. Kim, S. Y. Park, T. Y. Lee, & D. H. Ka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on the Clinical Fieldwork."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2, No. 1, pp. 69-81. 2004.

[3] M. K. Choi, Y. S. Jeon, W. J. Hong, S. K. Kim, D. H. Kim, & A. J. Kim,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valuation of Students' Spot - Practice i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Vol. 33, No. 2, pp. 373-380. 2004.

[4] M. J. Park, "Study on Process and Content of Field Instruction of Community Center."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1999.

[5] K. A. Jang,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35-42, 2015.

[6] Y. H. Park, "A Little View on the Understand of Supervision and Fieldwork Evaluation and Interviewing Techniques in Need of Social Work Department Student's Fieldwork." *Kyonggi University. Social Welfare a collection of treatises*. 1988.

[7] I. K. Jo, "Role Performance of Cooperating Teacher as viewed by Student Teacher." *Ewha Womans University*. 1993.

[8] S. H. Ko, & K. M. Kim, "A study on first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Nurse*, Vol. 33, No. 2, pp. 9-17. 1994.

[9] M. Y., Park, & S. E. Kim, "A study on first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6, No. 1, pp. 23-35. 2000.

[10] M. H. Nam, & H. O. Kim, "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 pp 263-273. 2016.

[11] Y. J. Kim, "Type of Coping with Stress of Nursing



-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29-39, 2014.
- [12] N. H. Kim, “Pre-Service EFL Teachers’ Field Training Experiences and Changes in their Beliefs and Teaching Practice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06.
- [13] J. S. Choi, “Comparison of Perceptions about Teaching Practices by Student Teachers Before and After Practice Teaching.”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6, No. 4, pp. 113-123. 2005.
- [14] H. J. Park, &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17-426. 2014.
- [15] K. F. Lewin, “Theory in social science: selected theoretical paper.” New York: Harper & Row. 1951.
- [16] Korea Educational Consulting Institute [Internet]. DOI: [http://www.kdisc.co.kr/page/sub2\\_1](http://www.kdisc.co.kr/page/sub2_1).
- [17] Marston W, M. “Emotions of normal people.” Minneapolis: Persona Press. 1979.
- [18] DISC personal profile system. Korea educational consulting institute, trans. Seoul: Korea Educational Consulting Institute. 2001.
- [19] Lee Y. J, “ Relationship of DISC behavioral styles and job satisfaction among corporate membership.” Master’s thesis. p.1-73. Seoul: Korea University. 2009.
- [20] Oh W. S, “According to the type of organization behavior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Vol. 12, pp. 207-224. 2000.
- [21] Eysenck, H. J. “Stress disease and personality.” The inoculation effect, in stress research, edited by Cary, L. Cooper, John Willy, & Sons, Lid. 1983
- [22] Lazarus, R, S,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Y. : Mcgraw-Hill. 1996.
- [23] Lazrus, R, S, & Folkman. S,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A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colla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 pp. 150-170. 1984.
- [24] H. J. Park, “Study on Job Stress and Response to it of High School Teachers in Charge of Third-grade Clas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3.
- [25]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Erlbaum. 1988.
- [26] H. K. Lee, “A Study on stress and coping method of nursing students.” *Psychiatric Nursing Research*, Vol. 12, No. 4, pp. 586-593. 2003.
- [27] H. K. Ju, & I. P. Hwang, “A study on the relatedness among stress causes, symptoms related, and groups that apply to.” *The e-Business Studies*, Vol. 13, No. 5, pp. 23-35. 2012.
- [28] Y. H. Lee,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DISC Behavior Pattern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5, No. 2, pp. 523-538. 2015.
- [29] K. H. Bang, H. K. Jang, & Y. M. Jung, “Relation between the DISC Behavior, Coping Type and Level of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spital Employees.” *Korean Society of Hospital Management*, Vol. 15, No. 3, pp. 17-32. 2010.
- [30] Y. H. Jeong, & K. H. Lee, “Effect of Verbal Abuse Experience, Coping Style and Resilience on Emotional Response and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u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397-399. 2016.
- [31] H. U. Yoon, & N. R. Oh, “Satisfaction practiceof the practice conditions characteristic for Dental Hygiene(department) maj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2, pp 305-314. 2016.
- [32] S. Y. Bae, & S. H. Kim,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and Job Seeking Stress on Depression among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269-278. 2016.

차 수 민(Cha, Su Min)



- 2005년 2월 :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이학사)
- 2010년 2월 : 한림대학교 작업치료학과(이학석사)
- 2015년 2월 : 인제대학교 재활과학과 작업치료전공(이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작업치료, 노인작업치료, 인지재활
- E-Mail : csm1206@hanmail.net